

##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박 재 규\*\*

### 초 록

최근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함께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에 따라 빈곤현황을 비교하고,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성가구주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여성가구주 1,327명의 개인자료 및 가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의 여성가구주 발생은 사별에 의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와의 이혼 및 별거에 의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 중 1/4 이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상태에 있었고, 특히 남편과 사별하였거나 이혼한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미혼의 여성가구주는 적었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혹은 미혼의 여성가구주 중에 빈곤층 여성은 2000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 많은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별거한 여성가구주 중 빈곤층 여성가구주는 최근에 발생한 경향이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가주택 소유 여부와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미취학 및 초중고자녀,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미혼 여성가구주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최근 여성가구주가 된 경우 가난하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빈곤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라 빈곤실태가 상이하며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여성가구주, 빈곤특성, 빈곤극복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발표 당시 귀중한 논평을 주신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sky21@gfwdi.or.kr)

## I. 문제제기 및 목적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1.0%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0년 18.5%까지 증가하여 1990-2000년 사이에 3.2%p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 22.1%(3,689천명)로 증가하여 2001-2008년 동안 3.6%p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이상과 같이 최근 여성가구주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즉 과거 여성가구주의 발생이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면, 최근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 및 단독 가구 증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박재규, 2003).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30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 추이에 의하면, 미혼이 12.5%에서 15.4%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혼에 의한 가구 또한 5.6%에서 10.4%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별에 의한 가구는 같은 기간에 11.4%에서 9.7%로 감소(1.7%p)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성가구주 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5년 여성가구주 구성 비율에 의하면 사별, 미혼, 유배우자, 이혼에 의한 가구주 순에서 2011년 이후에는 사별, 미혼, 이혼, 유배우자 순으로 변화하며, 특히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5년 44.3%에서 2030년 33.5%로 10.8%p가 감소하지만,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14.2%에서 23.2%로 9.0%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8).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여성가구주가 곧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가 여성가구주의 증가 현상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박재규, 2003). 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에도 가정 내 돌봄 및 보호노동을 전담하도록 강요하는 가부장제적 가족문화 때문에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남성에 의존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실할 경우 소득감소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으로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수정, 2007; 성정현·송다영, 2006).

그러나 기존의 여성가구주 논의는 여성가구주를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간주하고 접근해 왔다. 즉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별거,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등 여성가구주 내의 다양한 집단 차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 후 여성가구주의 소득감소 및 경제생활 수준 변화를 검토한 연구가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즉 유형)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여성가구주의 유형에 따른 빈곤실태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와 빈곤은 우리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빈곤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자립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의 내적 다양성과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여성가구주의 발생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며, 2) 발생원인과 빈곤의 관련성을 검토하며, 3)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에 따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무엇이며, 4) 여성가구주의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가구주가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였고, 최근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여성가구주의 발생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여성가구주의 발생과 관련된 시점을 4단계(1900년 이전, 1990-1997년, 1998-2001년, 2002-2007년)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사별, 이혼, 별거, 미혼, 유배우자 등)에 따라 여성가구주의 연령, 거주지역, 자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여부, 노후준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빈곤상태가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 및 시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빈곤상태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넷째,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라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 및 시기에 따라 빈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목적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중에 여성가구주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전체 개인 자료 10,013명 응답자 중에서 여성가구주로 분류되는 1,327명을 추출하였고, 9,084 가구자료에서 여성가구주 자료만 추출하여 '여성가구주'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전체 9,084가구 중에 14.6%에 해당되는 1,327명의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14.6%로 우리나라 전체 여성가구주 22% 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조사대상 범위를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과 유형별 규모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가족여성패널자료는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의 종단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목적에서 통계청이 2008년 발표한 '혼인상태별 성별 가구 수 변화' 자료를 아래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빈곤 측정은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의 실제 월평균 소득 수준으로 계산하였다. 즉 여성가구

주의 빈곤 수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가구규모별 2007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여성가구주의 가구원 수 대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표 1>과 같다. 예를 들면, 2007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205,535원이며, 2008년에는 2007년보다 5%가 증가한 1,265,848원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여성가구주의 가족원 규모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만일 2007년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보험, 이전, 기타소득)이 734,412원 미만이면 빈곤가구로 분류하고, 반면에 734,412원 이상인 경우 비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sup>1)</sup>

〈표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7-2008)

(단위 : 원)

가구 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참고( <http://www.mw.go.kr>).

다음으로 여성가구주의 자녀 변수는 자녀 연령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초중고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그리고 미혼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여성가구주의 거주지역은 광역도시, 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유형)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목적에서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2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여성가구주 발생의 전환점이 된 경제위기 환경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고, 2001년 이후 거시적 경제지표가 상당 수준으로 회복되기

1) 빈곤 여성가구주란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최저생계비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이다. 반면 그 값이 1~1.5(최저생계비의 150%) 사이인 경우 빈곤근접, 그리고 1.5이상인 경우 비빈곤가구로 분류함.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가족경제 어려움으로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상당 정도 진정된 2001년 이후에도 가족해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후속적 영향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혼에 의한 가족해체 혹은 결혼기피에 따른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1990년 이전, 1990-1997, 1998-2001, 2002-2007)로 시기를 구분하여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유형)은 현재 여성가구주라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즉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성가구주를 비롯하여 미혼상태의 성인여성가구주, 그리고 남성 배우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구주 역할을 하는 여성가구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배우자의 사별, 이혼, 별거 등에 의한 여성가구주 발생은 여성 응답자가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했거나, 또는 별거 중에 있다고 응답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 자신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여성 또한 여성가구주로 분류하였고, 미혼상태의 여성가구주는 2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여성가구주로 간주하였다. 다만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만20세 성인이 되는 시점을 여성가구주 발생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그 시점 측정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sup>2)</sup>

그밖에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빈곤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연령, 교육수준)와 경제생활 수준(월평균 소득, 부채, 주택형태, 노후준비),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에 대한 측정을 아래 <표 2>와 같이 하였다.

2)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 측정과 관련하여 패널자료가 아직 1차년도 자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사별, 이혼, 별거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패널자료에는 종단적 가족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 여성가구주의 이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을 측정하였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및 측정

구 분	변수 명	척도구성	측정
종속변수	빈곤	비율	월평균소득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등간	여성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서열	1 초등 이하, 2 중졸, 3 고졸, 4. 초대졸 이상
	혼인상태	명목	1 미혼, 2 유배우자 기혼, 3 무배우자 기혼
	자녀	명목	1 없음, 2 미취학자녀(다른 자녀 포함) 3 초중고자녀, 4 미혼성인자녀
	거주지	명목	1 광역도시, 2 도시, 3 농촌
경제생활 수준	월평균 소득	등간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월평균 전체 소득 합
	부채	등간	전체 부채액
	주택형태	명목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부), 4 월세(사글세), 5 무상 및 기타
	노후준비	명목	1 준비하고 있음, 2 준비하지 못함
노동시장 경험	경제활동	명목	1 비경제활동, 2 정규직, 3 비정규직, 4 자영업
가구주	발생시기	명목	1 1900년 이전, 2 1990-1997, 3 1998-2001, 4 2002-2007
	유형	명목	1 사별, 2 이혼, 3 별거, 4 미혼, 5 유배우자 여성가구주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발생 유형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발생원인에 따라 빈곤 현황,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생활 수준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차 분석을 하였고,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서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 Ⅲ.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

#### 1. 여성가구주의 증가

여성가구주란 전체 가족이 개별 가구원에게 가구주로 인식되는 여성이거나 혹은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뿐만 아니라 유배우자나 미혼모, 미혼의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탁선영, 2006, 재인용).

이처럼 가족의 해체나 혹은 가족구성 없이 발생하는 여성가구주는 항상 존재하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로 10년 동안 1.0%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0년 18.5%까지 증가하여 1990-2000년 사이에 3.2%p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가구주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에 따른 남성가장의 실직과 가족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가족해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정기선 외, 2000; 김승원 외, 2001). 예를 들면, 과거 여성가구주 발생은 주로 사별에 의한 것이었지만 최근 이혼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95년 56.1%에서 2000년에 50.5%로 5.6%p가 감소한 반면,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5년 7.1%에서 2000년에 11.6%로 4.5%p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여성가구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생원인에 따른 규모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 <표 3>에 의하면, 여성가구주가 2005년 21.7%에서 2007년 22.1%로 0.4%p 증가하였고, 2030년에 2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 존재 여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무배우자 가구가 각각 69.5%와 30.5%를 차지하였지만, 2030년에 이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63.5%로 6.0%p가 줄어든 반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6.0%p 증가하여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없는 여성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이혼에 의한 가구가 2007년 6.5%에서 2030년 10.4%



로 3.9%p 증가하며, 미혼 가구주 또한 12.9%에서 16.4%로 3.5%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한 가구주는 2007년 11.1%에서 9.7%로 1.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규모가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규모를 추월하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없는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들 가구 중에서도 여성가구와 남성가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먼저 남성가구 중에는 유배우자 가구가 감소하면서 배우자 없는 미혼남성과 이혼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7년 남성가구 중에서 미혼남성과 이혼남성 가구가 10.0%와 3.8%에서 2030년 13.1%와 6.4%로 각각 3.1%p와 2.6%p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여성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사별에 의한 가구가 감소한 반면 미혼과 이혼 여성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여성가구 중에서 미혼과 이혼 가구가 2007년 23.5%와 15.8%에서 2030년 26.9%와 23.2%로 각각 10.9%p와 7.4%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남성가구의 경우 200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유배우자 가구, 미혼가구, 이혼가구, 사별가구 규모 순서에서 변동 없이 비율 구성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여성가구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사별, 미혼, 유배우자, 이혼가구에서 사별, 미혼, 이혼, 유배우자 가구 순으로 그 순위와 구성 비율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변화, 특히 미혼남녀 가구의 증가는 가족가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달리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종속시키지 않고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 가족형성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공선영·박재규·윤연정, 2006). 이와 같이 오늘날 결혼의 필연성에 대한 태도가 크게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지위가 개선되면서 미혼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 수

(단위 : 천 가구, %)

		2005	2007	2010	2020	2030	2005	2007	2010	2020	2030
합	계	15,971	16,417	17,152	19,012	19,871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995	2,123	2,258	2,861	3,263	12.5	12.9	13.2	15.1	16.4
	유배우	11,268	11,414	11,799	12,493	12,615	70.6	69.5	68.8	65.7	63.5
	사 별	1,817	1,818	1,822	1,849	1,927	11.4	11.1	10.6	9.7	9.7
	이 혼	890	1,062	1,273	1,808	2,066	5.6	6.5	7.4	9.5	10.4
남	계	12,504	12,795	13,344	14,614	15,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201	1,273	1,356	1,719	1,988	9.6	10.0	10.2	11.8	13.1
	유배우	10,625	10,751	11,105	11,736	11,834	85.0	84.0	83.2	80.3	78.2
	사 별	280	281	284	304	338	2.2	2.2	2.1	2.1	2.2
	이 혼	397	490	598	857	965	3.2	3.8	4.5	5.9	6.4
여	계	3,467	3,622	3,809	4,397	4,746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794	850	902	1,143	1,275	22.9	23.5	23.7	26.0	26.9
	유배우	643	662	694	758	780	18.5	18.3	18.2	17.2	16.4
	사 별	1,537	1,537	1,537	1,545	1,589	44.3	42.4	40.4	35.1	33.5
	이 혼	493	573	675	951	1,102	14.2	15.8	17.7	21.6	23.2

자료 : 통계청(2008).

## 2.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논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분업구조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여성의 경제적 빈곤, 빈곤의 여성화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다(석재은, 2004; 송다영·김유나, 2008). 즉 많은 여성이 여전히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 및 양육책임자라는 성별분업 ‘사회화’ 교육을 통해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male dominant ideology)를 스스로 내면화시키고 있으며(조옥라, 1985; Connell, 1987; Palley, 1990), 그 결과 결혼 후 혹은 자녀 출산과 함께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퇴출’되는 자발·강압적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금재호, 2002; 황수경, 2002). 여성의 경력단절 관행은 여

성의 M자형 취업곡선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여성은 결혼이나 혹은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 둔 뒤, 막내 자녀의 양육을 끝으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금재호, 2002; 박경숙, 2002; 한준, 2002).<sup>3)</sup>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의 경우 ‘좋은 일자리’보다 여성 집중 혹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직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구명숙 외, 2005; 오은진 외, 2008). 이처럼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과 활동, 재진입 과정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informal barriers)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다(Guy, 1994; Morrison, White and Velsor, 1987; 박재규, 2002).

여성의 경제적 종속성 혹은 경제활동참여 제약 하에서 ‘생계’를 책임진 남성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은 심각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남성 배우자의 상실로 여성가구주는 주요 소득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좋은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욱이 여성가구주처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가구주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 배우자 상실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소득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여성의 가구소득이나 소득구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의 실질적인 소득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생활수준도 73% 감소한 반면 남성은 42% 증가하여 대조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빈곤률은 이혼 전 13%에서 이혼 후 32%로 19%p가 증가하는 등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심화되었다고 한다(윤홍식, 2003).

여성가구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인적자원에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가구주는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열악한 편이며, 잠재능력을 개발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의 열악한 건강은 또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보다 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3) 최근 들어 여성의 M자형 취업특성을 비판하는 논의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김병조·김순영, 1996; 김영옥, 1999).

한다(윤성호, 2008).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여기에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등 가정 내 보호노동의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잠재적 빈곤층으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 노동이 요구되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일수록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 가능성이 높다. 즉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박수미, 2002).

이상과 같이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남성 배우자와의 결혼관계가 단절된 이후 제기되는 소득감소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여성가구주가 되는 다양한 경로,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사별, 별거, 이혼, 혹은 배우자가 있지만 가구주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성 등과 같이 여성가구주 집단 내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문현숙·김득성, 2000; 윤홍식, 2004). 더욱이 기존 연구의 경우에도 제한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13개 이혼여성의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한 문현숙과 김득성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응답자의 62%가 경제생활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자료 자료에서 79명의 이혼 및 별거 여성가구주와 223명의 사별 여성가구주를 분석한 윤홍식 연구(2004)에서 여성가구주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161명의 이혼 여성가구주를 분석한 김미숙 외의 연구(2005)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의 소득감소가 남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여성가구주의 발생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 속에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의 발생 원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한계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라 빈곤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 3. 여성가구주의 빈곤 측정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가구의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빈곤 개념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한 시점에서 결정되고 이후에는 매년의 물가 변화만을 고려하여 조정이 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선은 인구전체의 소득(통상적으로 중위소득의 50%) 변화에 따라서 매년 조정된다. 후자는 인구전체의 소득 수준이 상이한 국가 사이의 빈곤을 비교할 경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 나라의 빈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약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itro and Michael, 1995).

본 연구는 절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측정하였다. 빈곤선의 기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자료이다. 정부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자료는 앞에서 제시한 <표 1>과 같다.

## IV. 자료분석 결과

### 1. 여성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여성가구주 1,327명을 분석한 여성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해당되는 여성가구주의 지위 분석에 의하면, 남성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가구주가 34.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미혼인 상태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가구주가 각각 21.9%와 20.7%로 비슷하게 높았다.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 상태에서 가구주가 된 여성이 18.3%를 차지하였으며, 별거 중인 여성이 4.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여성가구주 구성 비율 추정자료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여성가구주의 연령에 의하면, 평균 44.7세로 나타났고, 40대와 50대가 각각 26.5%와 2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9.4%로 동일하였고, 20대는 10.9%를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았는데, 중학교 이하 여성이 40.9%(초등학교 25.4%, 중학교 15.1%)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학력의 여성이 32.4%, 그리고 초대줄 이상이 26.7%를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이 39.6%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60.4%는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이들 중에는 미혼성인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가 32.7%, 초중고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가 18.3%, 그리고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은 9.4%를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의 주거형태에 의하면, 자기 주택을 소유한 여성이 42.9%를 차지하여 전국 자가 주택 소유 비율 55.6%(2005년 기준)에 비해 12.7%p가 낮았다. 반면 약 60%는 자가 주택이 없었는데, 23.2%는 전세에 살고 있었고, 20.2%는 월세, 그리고 7.4%와 6.3%는 사글세 및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원으로 낮지 않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여성이 65.4%(50만원 미만도 42.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150만원 이상 여성이 19.6%(200만원 이상은 12.0%)에 불과하여 일부 여성가구주만이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1,15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없는 여성가구주가 69.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5,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여성가구주는 6.6%를 차지하여 생활에 심각한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4.0%를 차지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이 많았고, 반면에 임금근로자는 32.0%를 차지하였다(정규직 여성근로자가 17.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14.5%). 그밖에 자영업 종사 여성가구주가 23.0%를 차지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도 부족한 편인데, 전체 여성가구주 중의 67.3%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는 반면 32.7%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대부분은 노후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었는데 건강을 걱정하는 여성이 53.8%,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는 여성이 37.9%를 차지하였다.

〈표 4〉 여성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일반적 특성	범 주	빈 도	비 율	비 고
여성가구주 지위	미혼 별거 사별 이혼 배우자 동거	275 61 456 291 243	20.7 4.6 34.4 21.9 18.3	(N = 1,326)
연령	20대 이하 30 - 39 40 - 49 50 - 59 60대 이상	144 257 317 352 257	10.9 19.4 23.9 26.5 19.4	평균 = 44.7 (N = 1,32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초대졸 이상	342 200 430 354	25.8 15.1 32.4 26.7	(N = 1,326)
자녀	없음 미취학자녀 있음* 초중고자녀 미혼성인자녀	499 119 230 412	39.6 9.4 18.3 32.7	(N=1,260)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 무상 및 기타	569 308 267 98 83	42.9 23.2 20.2 7.4 6.3	(N=1,325)
월평균 총 수입	50만원 미만 50 - 99만원 100 - 149만원 15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234 123 84 42 42 24	42.6 22.4 15.4 7.6 7.6 4.4	평균 = 178만원 (N = 1,273)
평균 부채금액	없음 1,000만원 미만 1,000 - 2,999만원 3,000 - 4,999만원 5,000만원 이상	871 99 156 53 83	69.0 7.8 12.4 4.2 6.6	평균 = 1,156만원 (N = 1,262)

(계속)

일반적 특성	범 주	빈 도	비 율	비 고
경제활동참여	정규직(임금노동자)	232	17.5	(N = 1,326)
	비정규직(임금노동자)	192	14.5	
	자영업	306	23.0	
	무급가족종사자	13	1.0	
	비경제활동인구	583	44.0	
노후준비	준비하고 있음	434	32.7	(N = 1,327)
	준비하지 못함	893	67.3	
노후걱정 문제	건강문제	714	53.8	(N = 1,327)
	경제적 문제	503	37.9	
	기타	109	8.2	

\*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 범주에는 미취학자녀를 포함하여 초·중·고 자녀 및 미혼성인 자녀를 두고 있을 여성가구주도 포함시켰음.

## 2. 여성가구주 발생원인의 시기별 차이 분석

여성가구주의 발생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그리고 단독가구 형성 등이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X^2=37.0$ ,  $p<.001$ ).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사별과 미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즉 1997년까지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47.1%로 높고, 미혼 여성가구주도 52.8%로 높았지만,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01년 이후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이 43.2%로 높았다. 반면에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는 35.6%, 미혼여성가구주는 23.6%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가구주 발생시기를 균등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구 발생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또한 재혼에 의한 감소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일차적으로 최근 들어 배우자와의 사별보다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 발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높게 발생하고, 또한



2000년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표 5〉 여성가구주의 시기별 발생원인

(단위: %, 명)

구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전체
1990년 이전	19.0(86)	15.7(44)	9.8(4)	25.5(70)	19.2(204)
1990-1997	28.1(127)	21.8(61)	24.6(15)	27.3(75)	26.1(278)
1998-2001	17.3(78)	19.3(54)	14.8(9)	23.6(65)	19.4(206)
2002-2007	35.6(161)	43.2(121)	50.8(29)	23.6(65)	35.3(376)
합 계	100.0(452)	100.0(280)	100.0(57)	100.0(275)	100.0(1,064)

$X^2 = 37.0, p < .001$

다음으로 여성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성가구주 지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여성가구주의 연령, 거주 지역, 주거형태, 부채액, 경제활동참여, 노후준비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지위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별 여성가구주의 경우 50-60대 연령층이 많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농촌지역, 자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 부채를 갖고 있으며, 자영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는 40대가 많고, 고졸 학력, 광역시 및 도시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일부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여성가구주는 50대 연령층, 고졸학력이며 도시지역에서 자기주택 및 무상주택에 거주하며, 3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4) 미혼 여성가구주의 결혼의사 분석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인 가구를 형성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결혼의사를 갖고 있는 여성이 70-80%로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1990년 이전에 미혼 가구주를 형성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60% 이상이 결혼의사가 없어 대조를 이루었다(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생략하였음).

미혼의 여성가구주는 30대 이하이며, 초대줄 학력을 가진 사람이 다수이며, 광역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부채는 없는 편이며, 정규직(및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많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는 30-40대 연령층, 고졸 이상 학력에 광역시 및 도시지역에서 자기 주택을 갖고 있으며, 약간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 여성가구주의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유배우자	전체	검증
연령	20대	.0	.7	1.6	47.3	4.5	10.9(144)	$X^2 = 993.0$ , $p < .001$
	30대	2.4	18.2	18.0	32.4	38.3	19.4(257)	
	40대	13.4	44.3	24.6	13.8	30.5	23.9(351)	
	50대	38.4	30.2	44.3	4.0	20.6	26.5(351)	
	60대	45.8	6.5	11.5	2.5	6.2	19.4(257)	
교육 수준	초등 이하	56.7	17.2	13.1	1.8	8.6	25.8(342)	$X^2 = 669.1$ , $p < .001$
	중학교	19.8	21.0	27.9	3.6	8.6	15.0(199)	
	고등학교	18.9	48.8	42.6	28.0	40.7	32.5(430)	
	초대졸 이상	4.6	13.1	16.4	66.5	42.0	26.7(354)	
거주 지역	광역시	35.3	45.0	37.7	58.2	49.0	44.4(594)	$X^2 = 152.7$ , $p < .001$
	도시	25.7	44.3	47.5	34.5	41.2	35.4(470)	
	농촌	39.0	10.7	14.8	7.3	9.9	19.8(262)	
주거 형태	자가	69.7	19.2	28.3	16.4	54.7	42.9(568)	$X^2 = 360.8$ , $p < .001$
	전세	14.5	22.7	23.3	34.5	27.6	23.3(308)	
	월세(보증)	5.9	38.5	28.3	31.6	9.9	20.2(267)	
	월세/사글세	4.8	10.0	6.7	12.0	4.1	7.4(98)	
	무상/기타	5.1	9.6	13.3	5.5	3.7	6.3(83)	

(계속)

구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유배우자	전체	검증
부채액	없음	67.4	64.4	53.7	84.3	63.2	69.0(870)	$X^2 = 101.3$ , $p < .001$
	1천만 미만	10.5	10.1	3.7	5.6	3.6	7.9(99)	
	3천만 미만	13.7	16.2	9.3	6.7	12.6	12.4(156)	
	3천만 이상	8.4	9.4	33.4	3.4	20.6	10.8(136)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44.3	44.3	54.1	29.8	56.0	43.9(582)	$X^2 = 131.4$ , $p < .001$
	정규직	7.7	14.1	11.5	41.8	14.0	17.5(232)	
	비정규직	14.3	20.6	21.3	12.7	8.2	14.5(192)	
	자영업	32.7	20.6	13.1	15.6	18.9	23.1(306)	
	무급가족	1.1	0.3	0	0	2.9	1.0(13)	
노후준비	준비함	27.4	31.3	24.6	19.2	62.1	32.7(433)	$X^2 = 127.6$ , $p < .001$
	준비 없음	72.6	68.7	75.4	80.8	37.9	67.3(893)	

### 3.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 분석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양극화 실체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던 소득불평등이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2003년부터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통계청, 2008).

여성가구주의 지위에 따른 빈곤현황 분석은 <표 7>과 같다. 소득양극화는 소외계층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인 동시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조하는 가부장제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재혼이 어려워 계속해서 여성가구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 하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은 우선적으로 해고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여성은 구직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박재규, 2002a).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 분석에 의하면, 전체 여성가구주 중의 28.4%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었고, 최저생계비의 150%

에 해당되는 빈곤 근접(차차상위층) 여성가구주도 13.9%를 차지하여 전체 여성가구주 중의 42.3%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경기도 저소득층 연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22.6%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서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암시해 준다(김희연 외, 2008).

그리고 여성가구주의 지위에 따른 빈곤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X^2=152.7$ ,  $p<.001$ ). 즉 빈곤층 비율이 이혼, 사별, 별거, 미혼, 유배우자 여성가구주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에 의해 발생한 여성가구주 중에 빈곤층 비율이 37.9%와 37.1%로 비슷하게 가장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미혼 여성가구주의 19.9%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의 7.8%에 비해 각각 2배와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 또한 29.8%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중간’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속하는 빈곤 근접층(차차상위층)의 여성가구주 경우에도 사별이나 이혼,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가 미혼이나 유배우자 여성가구주에 비해 2-3배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의 빈곤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으로 별거 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 미혼의 여성가구주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 중 저소득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16.1%로 낮았다.

〈표 7〉 여성가구주의 지위에 따른 빈곤현황 분석

(단위: %, 명)

구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유배우자	전체
빈곤층	37.9(169)	37.1(106)	29.8(17)	19.9(53)	7.8(17)	28.4(362)
빈곤 근접층	17.7(79)	19.2(55)	17.5(10)	5.6(15)	8.3(18)	13.9(177)
비빈곤층	44.4(198)	43.7(125)	52.6(30)	74.4(198)	83.9(183)	57.7(734)
합 계	100.0(446)	100.0(286)	100.0(57)	100.0(266)	100.0(218)	100.0(1,273)

$X^2=152.7$ ,  $p<.00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에 따라 빈곤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발생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가구주가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빈곤실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X^2 = 31.1$ ,  $p < .001$ ). 즉 2001년 이후 남편과 이혼하였거나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별이나 미혼상태의 여성가구주보다 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1990년 이전부터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한 미혼여성의 경우 다른 여성가구주보다 빈곤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여성가구주가 된 경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사별한 여성에게서 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석결과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별거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혼이나 사별에 의한 여성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표 8〉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시기별 빈곤실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전체
1990년 이전	21.5	19.2	7.4	44.1	23.1(115)
1990-1997	28.3	19.2	25.9	13.2	23.3(116)
1998-2001	17.8	19.2	14.8	10.3	17.1(85)
2002-2007	32.4	42.3	51.9	32.4	36.5(182)
합 계	100.0(247)	100.0(156)	100.0(27)	100.0(68)	100.(498)

$X^2 = 31.1$ ,  $p < .001$

끝으로 본 연구는 전체 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주 유형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표 9>와 같다.

남편 배우자와의 사별로 가구주가 된 여성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택과 경제활동참여 등이다. 즉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전세 혹은 월세, 무상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비경제활동 여성가구주에 비해 자영업이나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이혼에 의한 가구주가 된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와 경제활동참여 여부 등이다. 즉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경제활동여성에 비해 자영업과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별거 시기가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광역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별거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IMF 이후 별거한 여성가구주가 IMF 이전에 별거한 여성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으며,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설명력은 약 3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과 경제활동참여, 여성가구주 발생시기 등이 있다. 즉 나이가 적은 여성일수록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IMF 이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여성가구주가 된 여성일수록 가난하였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여성에 비해 자영업 혹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난하지 않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여성에 비해 가난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의 빈곤에 대한 설명력은 21% 정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를 제외한 전체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 자녀, 거주지역, 주택형태, 경제활동참여, 가구주 발생원인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전체 변수에 의한 여성가구주 빈곤 설명력은 21%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자녀(특히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보증금을 수반한 월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반대로 비경제활동여성에 비해 자영업,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가구주가 빈곤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구주가 된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의 별거에 의해서 가구주가 된 여성이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

〈표 9〉 여성가구주의 지위에 따른 빈곤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사별 여성가구주		이혼 여성가구주		별거 여성가구주		미혼 여성가구주		유배우자 여성가구주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3.828***		-.084		13.308***		7.299**		-7.792*		1.872+	
연령	-.05	-.12	.01	.01	-.16	-.24	-.15	-.45**	.10	.16	-.02	-.08
교육수준	.14	.09	.20	.16*	-.04	-.04	.07	.03	1.30	.39***	.20	.14**
자녀												
미취학자녀	-.45	-.04	-1.23	-.20**	-1.48	-.09			-2.09	-.16	-.91	-.70*
초중고자녀	-.05	-.01	-1.12	-.29***	-.67	-.05	-		-1.81	-.15	-.42	-.05
성인미혼자녀	.29	.06	.384	.10	-1.29	-.11			-.32	-.02	.23	.04
자녀 없음	-	-	-	-	-	-			-	-	-	-
거주지역												
도시지역	.12	.02	-.31	-.09	-5.37	-.46**	.05	.01	1.08	.09	-.20	-.04
농촌지역	-.10	-.02	-.13	-.02	-.29	-.02	-.09	-.01	-.15	-.01	-.60	-.09**
광역시도	-	-			-	-	-	-	-	-	-	-
주택형태												
전세	-.67	-.10+	-.13	-.03	2.93	.22	-.01	-.01	.28	.02	-.07	-.01
월세(보증)	-.03	-.11*	-.15	-.04	1.43	.11	-.25	-.04	1.85	.02	-.66	-.10**
월세(사글세)	-.12	-.01	-.53	-.09	.02	.01	-.35	-.04	-.72	-.02	-.38	-.05
무상주택	-1.15	-.10*	-.16	-.02	-1.33	-.75	-.067	-.06	3.13	.10	-.74	-.07*
자가주택	-	-	-	-	-	-	-	-	-	-	-	-

(계속)

독립변수	종속 변수		사별 여성가구주		이혼 여성가구주		별거 여성가구주		미혼 여성가구주		유배우자 여성가구주		전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경제활동참여	1.17	.28***	1.14	.26***	-.16	-.01	3.10	.41***	2.12	.14*	1.26	.20***		
자영업	.78	.16*	.68	.13+	-.52	-.03	.99	.17*	1.35	.80	.89	.13***		
정규직	.28	.07	.23	.05	-3.91	-.30	.71	.08	-1.55	-.08	.67	.09**		
비정규직	-	-	-	-	-	-	-	-	-	-	-	-		
비경제활동														
가구주발생														
1990년 이전	.01	.01	-.44	-.19	-.74	-.03	1.26	.19					-.14	-.02
1998-2001	.23	.04	.01	.01	7.35	.47*	-1.12	-.16*	-				.04	.01
2002-2007	.09	.45	.26	.07	-1.46	-.13	-1.92	-.27**					-.19	-.03
1990-1997	-	-	-	-	-	-	-	-					-	-
발생원인														
미혼독립가구													.31	.05
배우자 별거	-		-		-		-		-		-		.90	.07*
배우자 이혼													-.03	-.01
배우자 사망													-	-
F	2.291**		3.371***		2.617**		3.418***		3.564***		6.738***			
R <sup>2</sup>	.123		.23		.390		.183		.211		.214			

+ p<.06, \* p<.05, \*\* p<.01, \*\*\* p<.001

## V. 요약 및 결론

### 1. 연구의 요약

여성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에 의해 여성가구주가 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의 여성가구주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여성가구주 발생경향과 비교할 때 비슷한 것이다. 여성가구주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았고, 자가주택보다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부 여성가구주는 미취학자녀 및 초중고학교 자녀를 두고 있었다. 여성가구주 중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이 많았으며, 그 결과 소득수준은 낮고, 일부는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구



주 중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여성가구주의 발생 결과는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2000년 이전의 여성가구주 발생은 사별에 의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이나 별거 또는 미혼의 여성가구주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층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빈곤층 가구가 28.4%로 높았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까지 합하면 저소득층은 42.3%로 높아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과 미혼의 여성가구주 중에 저소득층 여성은 2000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 많았지만,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여성가구주 중에 저소득층은 최근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미취학 및 초중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와 자기주택이 없는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비경제활동 여성가구주에 비해 자영업 및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가주택 소유 여부와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미취학 및 초중고자녀,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미혼의 여성가구주는 20-30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나이가 많거나 최근 여성가구주가 된 경우 가난하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2.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과 같이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과 빈곤실태 분석에 의하면, 어떤 원인으로 여성가구주가 되느냐 그리고 언제 여성가구주가 되었느냐 등에 따라 빈곤상황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여성가구주의 빈곤극복을 위한 정책이 모든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존재형태에 따라 빈곤극복을 위한 정책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가구주 중에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한 여성은 최근보다 과거에 사별을 경험한 여성일수록 더 빈곤한 사람이 많았고, 반면에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최근 이혼할수록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이혼여성의 경우는 이혼과 함께 빈곤에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그것은 곧 사별과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발생 상황이 서로 다르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배우자와의 사별을 통해 가구주가 된 여성 중에는 자기 주택이 없거나 혹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여성이 상대적으로 가난하였다. 이런 결과는 남편과의 사별로 가구주가 된 여성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고, 미혼의 성인자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전소득이 매우 낮음)이 되지 않아 결국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남편을 잃은 여성가구주의 경우 정신적 공허감이 크고, 우리사회의 여성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 때문에 여성은 새로운 가정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사별한 여성가구주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접수되는 순간 지역정신보건센터 혹은 '지역사회' 상담센터로 연계하여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가구주가 된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고, 부양할 자녀(미취학 및 초중고자녀)가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 가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보다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 남편과 이혼한 여성가구주는 이혼과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배우자와 이혼하는

순간 여성가구주는 자가 주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나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정규직이나 전문직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혼 여성가구주는 이혼 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후 6개월 정도 ‘정신적 상담’과 함께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취학자녀 및 초중고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이혼 후 일정기간(6개월)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와의 별거를 통해 가구주가 된 여성의 경우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는 제도적·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부 여성은 별거 상태에 있으며, 1/3 정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상태인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별거상태의 여성가구주 또한 미취학자녀 및 초중고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별거 여성가구주가 별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경우 이혼 및 사별 여성가구주와 같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도입과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미혼 여성가구주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직 20-30대 초반 연령층으로 학업 중에 있거나 혹은 향후 결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주택형태, 경제활동참여, 교육수준, 미취학자녀 등이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세에 살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가구주,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가 다른 여성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경우 안정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복지정

책,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공급에서 여성가구주가 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성인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박재규·김현미, 2006). 또한 남편과의 이혼 및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에게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별거에 의한 여성가구주 지원을 위한 정책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공선영·박재규·윤연정(2006). 경기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구명숙 외(2005).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3(3): 153-167.
-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정책과제. 21세기 여성정치연합 토론회.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회의.
- 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류정순·손병돈(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사.
- 김미숙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 위험의 젠더 격차. 페미니즘연구. 7(1): 93-133.
- 김혜영·변화순·윤희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문현숙·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4(6): 197-211.
- 박경숙(2002). 한국여성의 생애 : M자형 취업곡선과 저출산력에 함의. 한국여성개발원·한국인구학회 주최 여성의 생애와 취업 자료집.
- 박수미(2002). 한국 여성의 첫 취업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박재규(2002). 취업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한국인구학회 공동주최 여성의 생애와 취업 자료집.
- \_\_\_\_\_(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3: 81-112
- 박재규·김현미(2006).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 56(2): 167-194.
- 성정현·송다영(2006).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복지정책*. 25: 81-106.
- 송다영·김유나(2008). 여성가족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2(4): 131-159.
- 오은진 외(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 연구. 여성부.
-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4): 67-94.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63.
- \_\_\_\_\_(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조옥라(1985). 한국사회와 여성의 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와 갈등 연구*. 현대한국사학연구소.
- 탁선영(2006). 빈곤여성가구주의 자조집단 참여도가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통계청(2008).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 \_\_\_\_\_(2008).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 준(2002). 기혼여성의 직업이동. *한국사회학회 2002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
- Citro, C. and R. T. Michael (eds.),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Connell, Robert.(1987). *Gender and Power :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y, M.E.(1994). "Organizational Architecture, Gender and Women's Careers,"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4(2): 77-90.
- Morrison, A., R. White and E. Van Velsor.(1987). Breaking the Glass

Ceiling, Reading, Mass: Addison-Wesley.

Palley, Marian L.(1990). "Women's Status in South Korea: Transition and Change," *Asian Survey* 30(12): 1136-1156.

##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Female-headed Household and Poverty Characteristics**

Chaekyu Par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cause of female-headed household and her poverty, to examine what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her poverty, and to suggest some ways to reduce her poverty.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works, this study uses the data of 1,327 female-headed households from the First KLoWF which i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ose who became female-headed household before 2000 were generally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On the other hand, those who became recently female-headed household were mostly gotten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mong total female-headed households over one-fourth is poor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particular, while the female-headed household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husbands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poorer, those who are living with their husbands or are unmarried are less poor. Furthermore, the poor women among the female-headed households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or unmarried became mostly female-headed household before 2000, the poor women among the female-headed households gotten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recently became the household head.

From regression on factors affecting poverty, for those who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ownership of house and economic activity are significantly important, while for those who gotten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education, school or non-school child, economic activity are significantly important. On the other hand, unmarried women who are older or recently became the female-headed households are poorer,

---

\*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Chief Research Fellow



but those who ar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are less poor. And the female-headed household's education and economic activity are significantly important to her poverty circumstance.

Given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ome ways overcoming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 In particular it emphasizes some differential ways for various kinds of female-headed households because the female-headed household's poverty status and factors affecting her poverty are differential according to the causes of female-headed household.

**Key words:** female-headed household, poverty characteristics, poverty overcome